

## NEWS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제22서경호’ 실종자 수색 종료  
14차례 잠수사 투입 선체 수색

전남도는 ‘제22서경호’ 수색 작업을 종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실종자 가족들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예비비 10억원을 긴급 투입해 침몰 해역에서 3월 23일부터 수색작업을 실시했다.

수색작업은 계약 종료일인 지난 27일까지 총 14차례 잠수사를 투입해 선체를 수색, 작업 마지막 날인 27일 오후 5시께 기관실 내부 수색을 마지막으로 계약 조건인 5회 선체 내부수색이 완료됨에 따라 이날 작업을 종료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색 기간 내내 현지 기상이 좋지 않고 선체 주변을 그물들이 감싸고 있어 수색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해양경찰의 수색 종료 후 민간 잠수사를 투입해 2명의 실종자를 추가로 수습할 수 있었다”며 “실종자 전원을 구조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고, 남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22서경호는 지난 2월 9일 새벽 여수 거문도 동쪽 약 20해리 해상에서 침몰했다. 침몰 당시 승선원 14명 중 4명이 구조되고, 5명이 숨졌으며, 5명이 실종 상태였으나 수색작업을 통해 2명의 실종자를 추가로 수습했다.

백정결 기자 holbu@gwangnam.co.kr

## ▶1면 ‘SKT 유심교체’서 계속

SK텔레콤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리점 직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유심 재고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물려드는 고객들의 원성을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문제는 본사에서 생겼는데 뒤처리는 대리점 직원들이 하고 있다”며 “재고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 없이 무상 교체를 약속해버리니 환자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부산지역에서는 60대 남성 C씨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알뜰폰이 개통되며 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봤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부산 남부경찰 등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2일 자신이 쓰고 있던 SKT 휴대전화기가 갑자기 계약 해지되며 본인 명의로 KT 알뜰폰이 새로 개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확인한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을 했다.

## 전남 농수산물, 글로벌 시장서 인기몰이

1분기 수출액 1억7916만달러로 전년보다 15.4% 증가

미국 관세장벽 불구하고 김·음료·유자차 등 수출 39.6% ↑

전남산 농수산물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남 농수산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한 1억7916만달러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는 김과 신선 농

산물, 음료 수출 호조가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수산물 수출이 1억2051만달러로 전체의 약 67%를 차지하며, 지난해보다 21.3% 늘었다. 이 가운데 김은 9540만달러로, 단일 품목으로는 압

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김은 미국, 중국, 유럽 등지에서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며 글로벌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신선농산물 수출은 984만달러로 55% 증가했다. 대표 품목은 쌀, 배, 파프리카, 키위 등이다. 배는 대만, 키위는 일본으로 수출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각각 51.4%, 1992% 증가했다.

음료는 963만달러로 배·유자음료 등 과일주스를 중심으로 64.7% 늘었으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베트남이다.

최근 미국의 관세장벽으로 전남 농수산물 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도, 미국 수출은 김, 음료, 유자차를 중심으로 39.6%나 증가했다. 중국은 김, 분유, 오리탈을 중심으로, 일본은 김, 전복, 미역 등 수산물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4.6%, 1.1% 늘었다.

시군별로는 목포시가 3124만달러로 43.5% 증가하며 농수산물 수출 1위를 기록했다. 김 수출 확대에 힘입어 수출

액이 대폭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고흥군 2960만달러(12.5% 증가), 신안군 2655만달러(22.6% 증가) 순이었다.

신현군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 세계 한류 확산과 건강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김과 음료를 중심으로 한 전남 농수산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에 주력해 수출 성장을 지속시켜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고광원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28일 우치공원 내 패밀리랜드를 방문해 놀이시설, 전기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 5월 가정의 달 맞아 안전관리 집중

시, 우치공원 패밀리랜드 구조물 이상 여부 등 점검

광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28일 우치공원 내 광주패밀리랜드에서 놀이 시설, 전기설비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고광원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및 민간 전문가, 시설관리 관계자 등 민간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인 놀이공원의 주요 설비를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놀이기구 구조물 이상 여부, 전기·소방 등 안전설비 작동 상태, 비

상대피 체계, 현장 종사자 안전수칙 준수 등이었다.

특히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 이용객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고광원 행정부시장은 “어린이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일수록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

## 광주 안전보안관, 도로·보행 위험요소 파악

344명 활동...6월까지 포트홀·개인형이동장치 등 신고

지역안전 파수꾼인 광주 안전보안관들이 도로·보행의 위험요소를 살핀다.

광주시는 오는 5월과 6월 두달간 안전보안관들이 직접 도로·보행 현장을 찾아 안전을 해치는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신고하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안전보안관’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역여건을 잘 아는 안전분야 민간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일과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각각 다음 달 3일, 4일이다.

같은 달 3일부터 6일까지 연휴 기간인 만큼, 한 대행이 주목도 등을 고려할 때 1일이나 2일에 공직에서 물러나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곳곳을 찾아 개인형이동장치(PM) 등 이륜차, 불법주정차, 불법현수막(도로 시야 확보 저해), 도로파임 등 도로 시설물 파손을 집중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예정이다.

안전보안관들은 또 생활주변 위험요소 점검 및 신고, 안전위반행위 공익신고 및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광주 안전보안관은 안전무시 7대 관행 신고 3003건을 포함 안전위반 행위 신고 2만9215건, 안전점검 및 예방 활동 78회, 안전 캠페인 59회 등 공익신고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이부호 안전정책관은 “지역의 안전과 수공인 안전보안관들과 함께 생활주변을 돌며 촘촘하고 적극적으로 안전위험요인을 제거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

## 韓대행, 내달초 사퇴후 대선출마 유력

총리실 “1~3일 결정날 듯”...참모도 사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달 초 대행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권한대행의 공식 사퇴 및 대선 출마 선언 여부는 5월 1~3일 중 하루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는 국무회의 주재를 포함해 예정된 일정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이날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비공개 내부 일정만을 소화할 계획이다.

한 대행은 조만간 정대철 행정회장과 회동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마에 대한 최종 결정을 굳힌 뒤 정치권 원로이자 경기도·서울대 산배로서 막역하게 지내온 정 회장을 만나 향후 행보를 상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행은 29일 국무위원 간담회와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날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되는 2차 경선 결과 발표도 예정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경선 결과에 따라 한 대행의 거취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어 30일에도 간담회에 참석하는 공개 일정이 잡혀있다.

또 총리실은 한 대행이 당일 방한하는 존 벨란 미국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9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 최종 결심은 굳힌 뒤 정치권 원로이자 경기도·서울대 산배로서 막역하게 지내온 정 회장을 만나 향후 행보를 상의할

트럼프 주니어는 30일 기업 총수나 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회동하고, 그 밖에 관·정계 인사들은 만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 대행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총리실의 일부 정무직 참모들은 이날 내 사퇴해 소수 정예 캠프를 꾸릴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총리실 운영팀 총리비서실장은 이날 사표를 제출했으며, 김수혜 공보실장을 포함해 핵심 참모들이 이미 지난주부터 사직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일과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각각 다음 달 3일, 4일이다.

같은 달 3일부터 6일까지 연휴 기간인 만큼, 한 대행이 주목도 등을 고려할 때 1일이나 2일에 공직에서 물러나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만남’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만남, 당신에 이상형!**

**바로연**

에서 인연을 만나다.

초혼·새운 결혼전문업체 바로緣 1644-5432/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